

대행 스님

내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익혀라

주인공에 관함으로써 깨달음을…

질문 유튜브를 통하여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수행 없이 주인공에 관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이거 보세요. 지금 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육신과 정신계가, 이 싹과 뿌리가 같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꽃이 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음파가, 지금 향의 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느냐는 소리는 마세요. 왜냐하면 육신과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맞붙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그런 가운데에 작용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오직 믿고 간다면, 그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가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움죽거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자꾸 변화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머니!"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또는 "애, 아무개야!" 부르면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전생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그 인연들이 지금 몸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빌리고, 자기 영혼의 뿌리와 인연이 된 그 생명들이 지금 혼합이 돼서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알아야 외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층 3층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아래층은 짓지 않고 2층하고 3층을 지으려니 그게 지어집니까? 그러니 나부터 안다는 것은 기초부터 다져서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야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두 나부터 알아야 할 텐데, 나를 내가 모르고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내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 갑니까? 그 생명들로 해서 모든 것이 진화돼 가지고 털구멍을 통해 들고 나면서, 분자가 됐다가 입자가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한데 합쳤다가, 작용을 무수히 하는 묘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을 보지 마라." 이러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 이 자리를 잡고 내가 나를 발견한 뒤에 경을 봐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를 않지, 요게 틀리고 요게 옳고 요게 그르고 이걸 따지다 보면 이 공부는 백 년 천 년이 가도 못 합니다. 이건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고 그대로 그대로,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게 활용이 됐을 때 그때에 경을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니 이거는 뭐, 천부당만부당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더라도 나한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것 보고 탐내랬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뚱이가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배 안에 중생들이 잔뜩 들어 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나도 옳다 너도 옳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배가 뒤집히느니라. 그래서 가서 닿을 데를 닿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 배라면 배 속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중생들이 이리 왈 저리 왈,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맡겨 놔야 이게 잔잔하게 다스려지죠. 그래야 배는 닿아야 할 곳에 가서 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또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다스려서 잘 지어 놔야 위층은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은 생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내가 체험하도록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진짜로 믿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물질적인 것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뀌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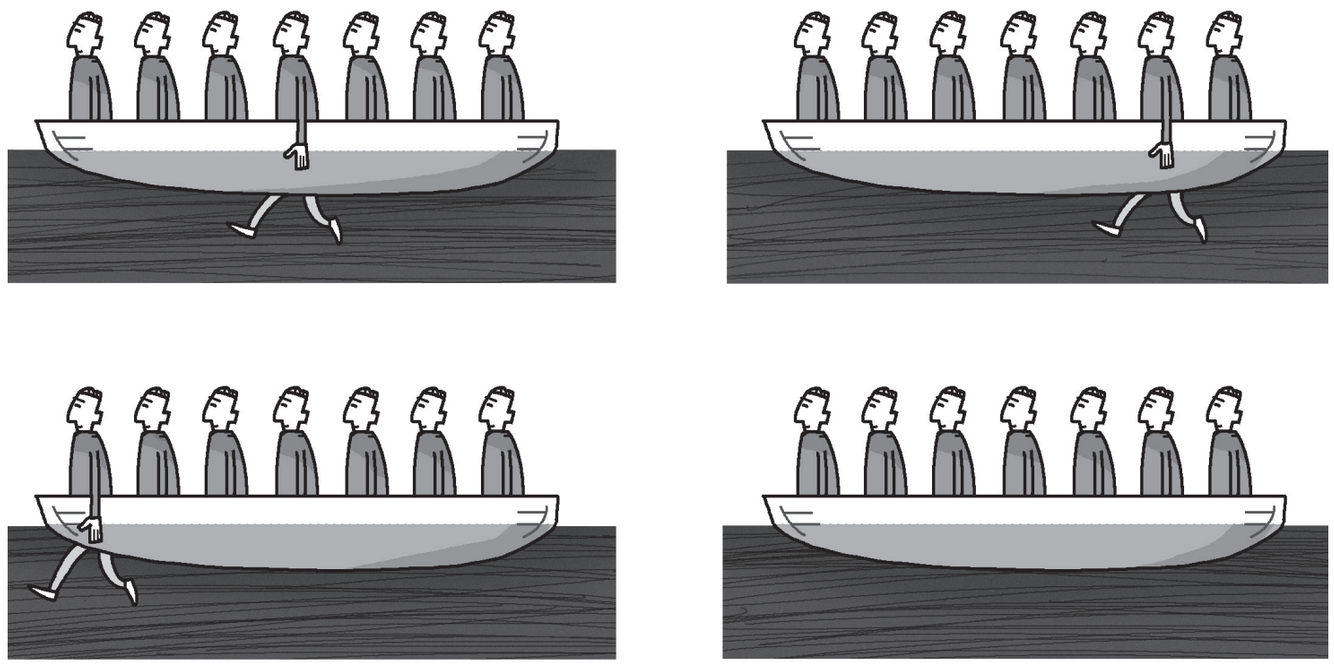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떻게 하면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다 맡겨 놓으려고 굳게 다짐했는데 뭔 일이 생기면 자꾸 바깥으로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놓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닥쳐오든지 간에, 자기가 '좀 놔야지, 왜 놓질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호령을 치세요. '요놈아, 그래도 너라고 자꾸 그래? 놓지 못하구!' 하하하. 자문자답하라구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됐다가 바로 자기가 중생이 됐다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하는 거죠. 답답하게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는 안 나와요. 딴 데서 주고 뺏어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허허 참, 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말이에요. 참 그게 재밌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야, 그것 좀 놔라.' 이러기도 하고, '너 참 슬기롭게 잘해 나가는구나.' 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궁둥일 쳐 줘요. '야, 너 슬기롭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네 진짜로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 무서운 것도 타개해 나가니 참 감사하구나. 빈손 감사해.' 하고 뽀뽀도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색경을 한번 보면서 색경에 내비친 그 입에다가 입도 맞춰 주고, 하하하.

전체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에요. 즉 한 솥에 죽 끓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 딴 데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 넣으면 되는 거죠. 아주 그렇게, 자꾸 자꾸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리가 터질 것입니다, 샘 솟듯.

소소한 일은 잘되는 듯한데

질문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소소한 일은 관하면 잘되는 것 같은데 막상 큰일이 닥쳤을 때는 관해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답변 부처님 공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부처님의 법이자 생활이

☞ 22면으로 계속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